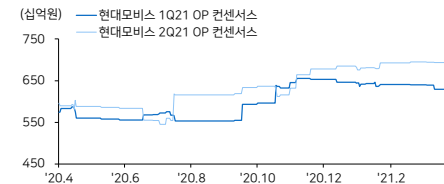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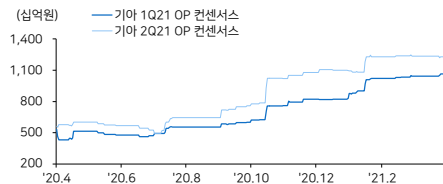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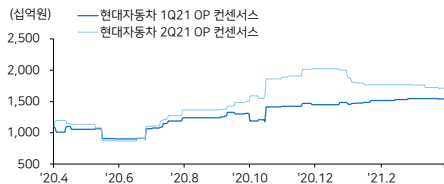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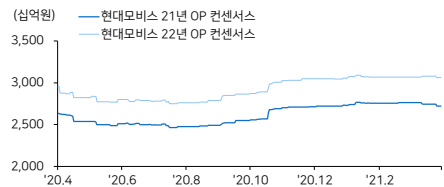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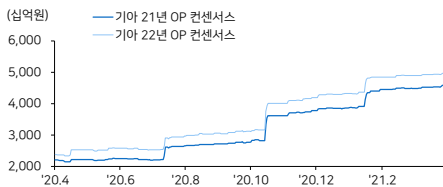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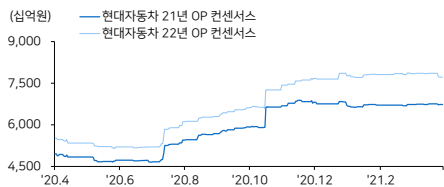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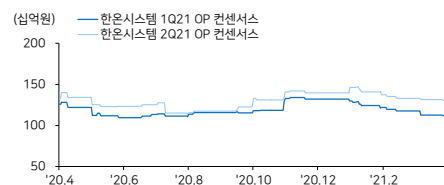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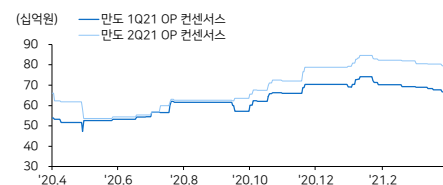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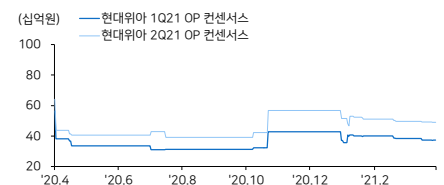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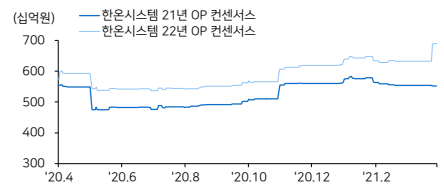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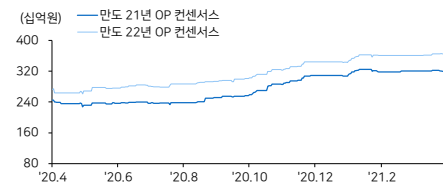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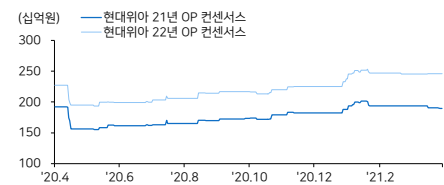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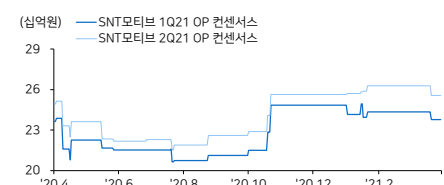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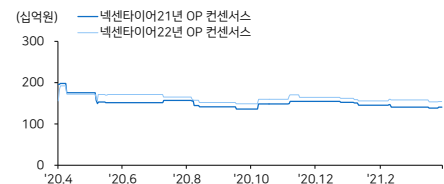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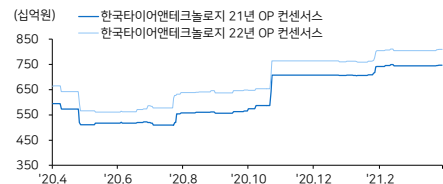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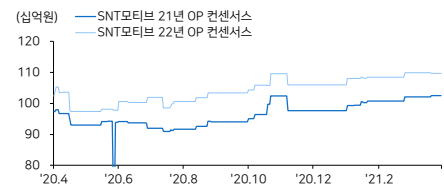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1분기 후 생산·내수·수출 '트리플 증가'...7년 만에 처음 (이데일리)

올해 1분기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생산 12.2%, 내수 11.3%, 수출 16.9% '트리플 증가'를 달성함. 특히, 친환경차는 민간 공동 노력으로 역대 분기 수출 사상 최대를 달성했으며, 내수 역시 역대 1분기 중 최대 판매를 기록함.
<https://bit.ly/3dZWbql>

현대차,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 출시 '미래 모빌리티 선도' (아시아경제)

현대자동차가 13일 신개념 다목적차량(MPV) '스타리아'를 세계 최초로 온라인으로 공개함. 높은 전고(1990mm)와 넓은 전폭(1995mm) 및 긴 전장(5255mm)으로 넉넉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장점으로, 15일부터 판매될 예정.
<https://bit.ly/2PPqh8l>

후반도체 만들어 GM·포드에 주겠다...총대 맨 인텔 (이데일리)

팹 결성어 인텔 CEO는 1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6~9개월 내에 실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차량용 반도체 설계업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함. 현재 미국과 이스라엘, 아일랜드의 공장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함.
<https://bit.ly/3W7sgc8>

GM 크루즈, 두바이에 자율주행 택시·승차 공유 서비스 독립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GM의 자율주행 차량사 '크루즈'가 두바이와 2023년을 시작으로 2029년까지 자율주행 택시와 승차 공유 서비스를 독립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CNBC가 12일 보도함. 크루즈는 2023년까지 최대 4,000대의 자율주행차를 운행할 것으로 예상함.
<https://bit.ly/3dcRzjz>

기아, 인도 점유율 마힌드라와 0.01%p 차이 '톱5' (THE GURU)

기아가 인도 시장에서 점유율을 2.86%에서 5.38%로 확대함. 4위를 차지한 마힌드라와의 점유율 차이는 0.01%포인트로, 현지 마케팅 책임자 영업과 인도공장 3교대 중산, 쏘넬 7인승 출시 등으로 인도 공력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sgHkNw>

현엔 상장으로 '실탄' 확보... 정의선 지배구조 개편 속도 (아시아경제)

현대엔지니어링의 상장으로 우선 정 회장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실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전기차 중심의 모빌리티 사업 강화도 더욱 속도를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https://bit.ly/3uDtQO2>

중 비아디, 더 도요타 전기차 생산 유력 (ZDNet Korea)

12일 중국 언론 파이커지는 비아디가 도요타를 위해 전기차를 생산하며 신차 도로 테스트가 이미 시작돼 2025년 이전에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함. 도요타가 개발·생산을 맡기 때문에 ODM하는 협력 방식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됨.
<https://bit.ly/3ZbN4NW>

화웨이도 전기차 진출 선언, 자율주행차에 1조 투자 (뉴스1)

에릭 쉬 화웨이 순회회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바이트 정부의 대중 공격에 따라 의료, 농업 및 전기차와 같은 새로운 분야에 투자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자율주행에 1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mF8LQ6>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